**KAIST** 



## 존경하는 KAIST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형 총장님이 제시한 QAIST 신문화전략의 구성 요소인 'T'는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성원 간 신뢰(trust)"를 의미합니다. 신뢰는 조직구성원 간의 존중과 소통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KAIST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렴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구성원의 청렴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권익을 신장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핵심 일환으로 '청렴옴부즈퍼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추진배경: 학교의 투명성·윤리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청렴한 문화 조성 및 자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 증대
- (2) 관련근거: 'KAIST 청렴도 향상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16조
- (3) 주요임무:
  - (a)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고충을 듣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
  - (b) 기관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발굴 및 개선 권고

물론 지금 현재도 학교 구성원이 청렴 및 권익과 관련한 문제를 인권윤리센터, 감사실 등 내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가 어느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과 파장을 일으키는 단계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렴옴부즈퍼슨'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이와 같이 학교 구성원의 청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법과 제도 이전에 구성원 간의 존중과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실 스무 분의 청렴옴부즈퍼슨을 학장님과 행정보직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였으며, 지난 8월 2일 총장님을 모시고 위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파일과 같이, 제1기 청렴옴부즈퍼슨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청렴옴부즈퍼슨은 친구이자 이웃, 동료, 삶의 선배, 혹은 멘토로서 여러분 모두의 곁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바람직한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청렴옴부즈퍼슨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사실 이 제도는 KAIST가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는 각 단계는 롤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모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청렴옴부즈퍼슨 제도가 우리 모두의 청렴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KAIST 구성원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보 원 드림 청렴권익위원회 위원장, 대외부총장





## **Dear members of KAIST:**

Greetings. President Kwang Hyung Lee proposed the QAIST new culture strategy, where "T" represents trust among members, which is essential for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Trust lays the foundation for respect and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Genuine trust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is free of corruption.

KAIST has formed the Anti-Corruption and Rights Committee, which not only promotes anticorruption, but also protects the rights of members. The anti-corruption ombudsperson system is part of the university's anti-corruption efforts.

The objectives of this system are as follows.

- (1) Background: Need to build the university's anti-corruption culture and enhance its self-cleaning capacity, so as to meet the higher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ethics
- (2) Basis: Article 16 of Rules on Anti-Corrup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at KAIST
- (3) Responsibilities:
- (a) Listen to members' complaints and propose solutions to issues identified in advance, preventing them from escalating into bigger problems
- (b) Identify irrational systems, practices or work procedures, and suggest improvements

At present, members can raise issues concerning corruption and human rights to the Center for Ethics and Human Rights and Auditor's Office. However, one point to note is that most problems do not break out suddenly, but gradually worsen over a long period and result in side effects which, by that time, are difficult to contain. If we try to detect and address problems in advance, we can minimize damage, and develop fundamental solutions. The key mission of the anti-corruption ombudspersons is to promote anti-corruption and protect the rights of members by finding fundamental solutions to problems identified in the early stage. The system aims to develop organic, long-lasting solu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communication among members.

The twenty ombudspersons have been selected based on recommendations by deans and holders of administrative positions. The appointment ceremony was held, in the presence of the president of KAIST, on August 2. Please find attached the list of KAIST's first anti-corruption ombudspersons.

The anti-corruption ombudspersons will be by your side, serving as friends, peers, or mentors. I expect the new system to motivate members to empathize with one another and come up with wise, effective solutions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KAIST is one of the first universities to implement the anti-corruption ombudsperson system. We will serve as a role model in each stage of its development. There have been voices of encouragement and concern, similar to the implementation of other innovative policies. I hope to see the anti-corruption ombudsperson system take effect as intended, and look forward to your interest, cooperation, and above all "warmhearted guidance." Thank you. Sincerely yours,

## **Bowon Kim**

**Chair of the Anti-Corruption and Rights Committee, Vice President for Planning and Budget**